

AIDS News

AIDS AZT-3TC 혼합치료 뛰어난 효과-영국 웰컴연구소 임상실험결과 발표-HIV 줄어들고 림프세포 CD4는 증가

현재 실험단계에 있는 새로운 AIDS 치료제 3TC를 기존의 치료제 AZT와 혼합 투여하면 지금까지 그 어느 방법으로도 달성하지 못했던 최대의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임상실험 결과 밝혀져 새로운 AIDS 치료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국 최대의 제약회사인 글락소-웰컴사 산하 웰컴 연구소는 미국의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AIDS를 일으키는 HIV 감염환자를 대상으로 24주에 걸쳐 AZT와 3TC를 혼합 투여한 결과 HIV가 줄어들면서 HIV의 공격대상인 림프세포 CD4의 수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CD4 세포는 사람의 몸을 감염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AIDS환자가 쉽게 감염되는 것은 바로 이 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AZT와 3TC의 혼합을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3TC는 HIV가 AZT에 대한 내성 형성을 차단하

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HIV 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HIV가 재빨리 변신하면서 치료제에 대해 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AZT와 3TC는 모두 글락소-웰컴사가 개발한 AIDS 치료제로서 이중 3TC는 현재 임상실험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3TC에 대한 임상실험은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대해 뉴욕 병원의 AIDS 전문의자 미국 AIDS 연구재단 과학자문위원인 제프리 로렌스 박사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고 평가하면서 "3TC는 HIV가 AZT에 대항하는 것가지 수단을 가로막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 AP 로이터=聯合)

일본 국교 교과서에 에이즈 설명 등장

AIDS가 크게 확산되면서 내년부터 일본 국민학교 보건 교과서에도 처음으로 에이즈에 관한 설명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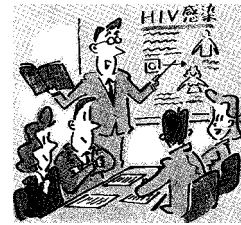
그러나 문무성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에이즈 감염 경로인 정액에 의한

감염은 "국민학교에서 성교에 관해 기술하는 것은 안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출판사측은 어린이들 사이에 에이즈라는 말이 남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무성은 이에 대해 당초 에이즈를 교과서에 등장시키는 것은 가정하지 않았으나 흔한 병의 하나로 혈액으로부터 감염되거나 국민학교 일상생활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해 에이즈를 설명토록 허용했다.

한편 성교육에 관해서는 출판사측이 일제히 설명 부분을 늘렸으나 전라의 그림을 사용해 남녀의 성장과정을 표현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정 과정에서 옷을 입힌 그림으로 대체됐다. (동경=聯合)



유엔 AIDS 퇴치노력 조정기구 신설-중복활동, 예산확보경쟁 폐해방지

여러 유엔기구들의 AIDS 퇴치노력을 조정할 새로운 유엔기구가 창설됐다.

유엔에이즈(UNAIDS)로 명명된 이 기구의 집행위원회는 쉐리 셀튼 미국 대사를 의장에, 그리고 들라미니 주마 남아공화국 보건장관을 3년 임기의 부의장에 각각 임명했다.

유엔은 작년말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그리고 유엔인구기금의 에이즈 퇴치노력을 조정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결정은 여러 기구들이 서로 중복되는 활동을 피하면서 예산확보경쟁을 벌이는 데다 여러나라 정부들이 서로 모순된 충고를 하는 등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내

AIDS News

러진 것이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에이즈는 약 1억4천만달러의 예산에 직원 1백 80명으로 오는 9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제네바 AFP=聯合)

중국 대학생 에이즈 예방교육 강화-기울 신학기 시범실시 후 전국 확대 예정

중국은 콘돔 사용으로 AIDS 감염을 막을 수 있음을 사상처음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등 올해부터 대학에서 에이즈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국가교육위원회 발표를 인용, 상해와 하남성의 대학생 8만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신학기부터 강의, 비디오와 슬라이드 시청, 건강회보 등을 통한 시범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원 위생부의 지 무홍 국장은 "성교육을 기피하지 않고 젊은이들의 건강에 관한 지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며 강사들은 난잡한 성관계 억제에 중점을 맞춰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부터 성교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당국은 콘돔이 에이즈 예방의 최선책을 위생부가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민 대부분이 에이즈를 더럽고 외국인들만이 감염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등 문제 대처에 머뭇거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에이즈에 관한 공개적으로 솔직한 논의없는 위기상황이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경 AFP=聯合)

에이즈 9명중 1명 동성연애로 감염-북지부 국내 감염자 443명 경로조사-국외이성간 성접촉 176명 수혈 19명

AIDS의 국내 감염자 5명 가운데 1명은 동성연애로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국내 에이즈 감염자 4백 43명을 대상으로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 동성연애에 의한 감염자는

19.2%인 85명으로 집계됐다.

또 국외 이성간 성접촉은 39.7%(1백 76명), 국내 이성간 성접촉은 28.7%(1백 27명)로 각각 조사됐다. 이밖에 수혈 4.3%(19명), 혈액제제 3.8%(17명), 역학조사 중이거나 기타 4.3%(19명) 순이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에이즈 감염자들이 여전히 동성애를 백안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성애를 숨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감염원인 중 동성애가 차

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국내 동성연애자들의 경우 미국 등 에이즈로 골치를 앓는 나라보다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실정이라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계몽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聯合)

AIDS 검사 '음성' 안심 못한다 -HIV 노출 의심 경우 6개월 후 재검사 필요



젊은이들이 HIV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콘돔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모습

AIDS News

AIDS을 일으키는 인면역 결핍바이러스(HIV)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이 될 때에는 검사결과 음성이 나왔어도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하며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프랑스국립수혈연구소의 장 자크 레프레르 박사는 영국의 의학전문지 랜싯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HIV는 체내에 잠복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HIV 검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차검사와 함께 6개월 후 2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레프레르 박사는 병원청소부로 일하던 한 여인이 HIV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바늘에 찔려 여러 번 HIV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으로 밝혀져 안심하고 있다가 6개월 후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8개월째에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었다고 말했다.

HIV 검사가 이처럼 뒤늦게 양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약한 형태의 HIV에 감염됐거나 감염정도가 약해 HIV가 체내에서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레프레르 박사는 말했

다. (런던 로이터=聯合)

“HIV 감염 급세기말 아시아가 아프리카 압도”—미국 AID 보고서—감염자 남녀비율도 같아져

세계보건기구(WHO)는 급세기말 아시아에서 연간 HIV에 감염되는 사람수가 아프리카 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미국제개발처(AID) 보고서가 밝혔다.

AID는 이날 공개한 94년도 HIV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HIV가 크게 주목받지 않으면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AID에 의해 HIV-1의 혈청학적 감염률이 0.1% 수준으로 저감염률 국가군에 분류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에 대한 이같은 수치가 “너무나 한정된 데이터에 근거하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워싱턴=聯合)

에이즈 확산 방지 위한 전쟁에 희망—아프리카, 태국인 등 콘돔사용 격증

미국의 공중보건 관리들은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한 싸움에서 밝은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에이즈 통계 예방 프로젝트 책임자인 피터 램프티 박사는 아프리카의 아이티에서 콘돔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태국의 군인들도 ‘에인’이나 환락업소 여인들과 관계를 가질 때 콘돔을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8년의 경우 아프리카인들은 1백만개에도 못미치는 콘돔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램프티 박사는 밝혔다. 이는 성적 능력이 있는 아프리카 성인들 가운데 1% 미만의 사람들만이 콘돔을 사용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아프리카에서 팔린 콘돔은 무려 1억1천2백만개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에디오피아의 경우 지난 91년 5백만개에도 미치지 못했던 콘돔 판매가 지난해는 1천5백만개나 팔려나갔다. (워싱턴 UPI=聯合)

인도 택시에 에이즈 경고문 부

착-거스름돈 대신 콘돔 지급 안도 고려

인도 금융중심지 봄베이 의 택시들에 콘돔사용 등 성병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무분별한 성행위의 위험을 승객들에게 주지시키는 경고문이 부착될 예정이라고 인도의 일간 아시아인 에이즈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AIDS 퇴치운동의 일환으로 또한 승객들에게 잔금 대신 콘돔을 지급하는 제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콘돔 배포계획은 봄베이 행정당국이 보수적 인도사회에 미칠 민감한 영향을 고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인도가 AIDS에 의한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나라 중 한 나라라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뉴델리의 UNDP 대표부는 AIDS의 원인균인 HIV에 감염된 인도국민의 수가 2백50만에서 3백만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델리 UPI=聯合) A